

목포권

목포시 을 건설공사 조기발주 순조

3월까지 88건 42% 발주

상반기중 85% 집행...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목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조기 발주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내수 경기 침체와 투자위축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 올해 발주가 예정된 210개 건설공사(사업비 1천300억 원) 중 85%인 180개 사업(사업비 1천10억 원)을 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196억 원)과 현충탑 건립공사(14억 원), 사랑의 섬관광휴양지 조성공사(17억 원) 등을 포함, 총 88건에 401억 원이 발주되어 발주대상 건수 대비 42%, 금액대비 39%가 발주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우 지역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조기발주 대상공사 중 20억 원 이상 대형공사는 목포국제체육센터 건립사업(450억 원)을 비롯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196억 원), 남악신도시 택지조성공사(120억 원), 석현 철도건설부~국도2호선 도로확포장공사(30억 원), 목포역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27억 원) 등 모두 5건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해양경찰이 신안군 흑산면 흥도초등학교에서 수상레저 출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고마워요 출장 시험”

목포해양 '수상레저 면허' 흥도서 시행 주민들 호응

목포해양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출장 시험이 호평을 얻고 있다.

목포해양은 최근 목포에서 뱃길로 152km 떨어진 천혜의 해상 관광지 신안군 흑산면 흥도에서 수상 레저 조종면허 출장시험을 시행했다.

흥도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이날 시험에는 흥도 주민 37명이 수상 레저 저 일반 조종면허 1·2급 필기시험에 응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1급의 경우 수상 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스쿠터 등 5마력 이상 동력 수상 레저 저 기구 사업과 조종을 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이 기구를 조종하다 적발

되면 벌금 등 행정처벌을 받게된다. 해경이 헬기를 타고 이 낙도 오지까지 찾은 것은 주 5일제 근무로 해상레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면허가 필요하지만 목포에 있는 시험장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낙도민을 위해서다.

특히 10만원 정도의 경비도 문제지만 이를 정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까지 겹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경이 단숨에 달려와 시험을 시행했다.

흥도 주민 김선태(46)씨는 “서남해 해상 관광의 핵심 흥도 주민들이 면허 취득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시험장이 멀어 임무를 못 내고 있었는데 낙도까지 해경이 직접 찾아와 시험 저 기구 사업과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없이 이 기구를 조종하다 적발

목포=이상규기자 lsh@

전남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중요은행

토종 해조류 품종 개발·보급 앞장

134어가에 김 사상체 공급

전남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해조류 중요은행'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6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요은행 운영으로 2003년 김 사상체를 22어가에 445g을 분양한 이후 2004년 78어가에 885g, 2005년 134어가에 1천120g을 공급했다.

올해도 지난 11일 현재 885g(3만3천3천)을 공급했다.

올해도 지난 11일 현재 885g(3만3천3천)을 공급했다. 특히 최근 8천만원의 들여 중요은행에 향응합성을 추가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특허등록한 급속동결기술 개발로 3만5천개까지 보존 가능한 대형 액체질소통(보존용기)을 구비함에 따라 더욱 역할을 커지게 됐다.

목포=이원희기자 whlee@

급속동결기술로 동결보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유와 함께 멸종위기에 있는 김, 미역, 톨, 다시마, 뜰부기, 모자반 등 토산 해조류에 대한 유전자원 보존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양식품종도 개발,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연구원은 앞으로 도내 전 연안에 서식·분포돼 있는 해조류에 대한 일체 조사를 실시해 서식상태, 유전학적 특징 및 이용형태를 기술한 해조도감과 이를 품종에 대한 표본제작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국의 80~90%를 차지해 전남지역이 경쟁우위에 있는 해조류 특허등록을 추가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특허등록한 급속동결기술 개발로 3만5천개까지 보존 가능한 대형 액체질소통(보존용기)을 구비함에 따라 더욱 역할을 커지게 됐다.

다도해 속으로 GO~GO

서부사무소 탐방객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열린 '흑산도 조류탐사 교실'에서 참가자들이 탐방 해설사와 함께 '새소리 흥내내기'를 배우고 있다.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서부사무소는 16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부사무소는 지난해 목포지역에서 실시했던 '찾아가는 국립공원교실'을 올해는 신안군 비금·도초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목포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립공원 환경교실-돌리미가 되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흑산도에서는 지난해 이어 진리 배낭기미에 조성돼 있는 자연관찰로에서 흑산도 자연해설프로그램과 흑산, 흥도 길목을 지나는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흑산도 이동성 조류탐사교실'을 연다.

문의 및 예약신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knps.or.kr/tado-hae)탐방프로그램안내와 전화(탐방시설팀 ☎ 061-284-9116)로 하면된다. /신안=조완필기자 wncho@

“힘 내세요”...‘사랑의 악기’ 기증

현악기협회, 해남등대원에 바이올린 등 30여대 전달



한국현악기협회가 사회복지시설인 해남등대원에 바이올린과 플루트 등 30여 대의 값비싼 악기를 기증(사 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직접 악기를 만지고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한국현악기협회는 지난 14일 바이올린 21대와 플루트 5대, 첼로 5대 등 모두 31대 (시가 1천5백만 원)의 악기를 해남등대원에 무료로 전달했다.

이날 악기기증은, 지난 2월 해남등대원을 찾아 위문공연을 했던 서울 '아마레 앙상블'이 '어린이들에게 꿈

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악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때 따른 것. 서울 단국대 음대교수들로 구성된 '아마레 앙상블'은 이곳에 봉사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과 병원 등에서 연주를 해오고 있다.

현악기 협회 김현식 회장은 “불우한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악기의 고장 수리까지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아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 생활공간인 사회복지법인 등대원은 지난 1953년 개원했으며, 현재 66명의 아이와 17명의 직원이 있다. /해남=박정희기자 jopark@

/지역 단신/

목포자연사박물관 입장객 100만명



목포자연사박물관 입장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자연사박물관은 16일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충북 청주시에서 단체 관광을 온 박근예(55·여)씨가 100만번째 입장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문을 연 자연사박물관은 하루 평균 1천 945명이 입장, 개관 513일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박씨는 1년간 가족 무료 관람권, 꽃다발, 고급시계, 자연사박물관 도록 등 푸짐한 선물을 받았다. /목포=이상선기자 sslse@

1,031평 규모 신안군민체육관 완공

신안군민의 숙원사업인 '신안군민체육관'이 완공됐다.

신안군은 “38억원을 들여 압해면 학교리에 연면적 1천31평, 1천405석 규모로 신축한 군민체육관 개관식을 20일 현지에서 연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체육관 바로 옆에 축구, 풋살, 테니스, 씨름, 게이트볼 등의 경기장과 화상실, 휴게실 등 다목적생활체육공원 시설사업도 오는 10월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군 관계자는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해 사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내년에는 체육관 옆에 종합운동장 건설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조완필기자 wncho@

공사 청렴 이행각서 교환제 시행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최근 공사현장 시공사 대리인과 공사감독원을 대상으로 '공사현장 청렴 이행각서 교환제'를 시행했다.

강력한 부패척결 및 부패방지 마인드 확산을 다짐한 이날 행사에는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관 70여명이 참석, 공사 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 없는 사회 구현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영산강사업단은 지난해 전국 8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반부패대책 평가 결과 '부패방지 제도 개선 종합대책'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정부 국정포상을 수상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se@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Rows include various statistics like population, area, etc.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엘지공인중개사', '유성공인중개사', 'LC타워(주)', '현대공인중개사', '21세기부동산개발(주)', and '대인동삼일부동산'. Each ad lists services, contact info, and property details.